

###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발전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지속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 동안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으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해 왔다.

우리 정부는 「참여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평화변영정책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더불어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심화를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및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3년에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 국내외의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궤도연결식이 개최되었으며, 40만톤의 식량지원과 분배현장 확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4개의 경협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경제협력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개성공단 착공식이 개최되었으며,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례화 되었다.

사회문화교류 역시 북한의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제주 평화축전행사 참가 및 우리측의 유경정주영체육관 개관행사 참가 외에도 다양한 남북공동행사가 개최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종합해 볼 때 2003년은 남북간 교류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절 남북경제협력사업

### 1. 경제협력사업 추진 현황

19 92년 10월 5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3년 12월말 현재까지 56건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과 27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1998년 이후 21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있었으며 2003년에는 평화항공여행사의 평양·백두산 관광사업, 한국광업진흥공사에 대한 510만달러 상당의 정춘흑연광산 개발사업 등 2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 가. 제조업 분야

2000년 이후 일부 제조업분야에서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제품 생산 및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녹십자는 2001년 7월 유로키나제 반제품을 최초로 반입한 이래 2003년에는 35만 달러 상당의 반제품을 반입하여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2년 4월 남포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준공한 이래 「휘파람」 자동차 463대를 생산하였으며 자동차 전시장과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편, 옥외 광고판을 평양에 설치하였다.

한편 그동안 물값 조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태창의 금강산샘물개발사업은 생산설비 등 투자규모를 증액하고(\$ 580만→\$ 830만) 육로운송을 통한 샘플 반입이 실현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 나. 정보기술(IT) 분야

2000년 3월에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이래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사업은 계획된 대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2003년 10월에 투자금액 증액(59.6만불) 및 신규과제(9개) 추가를 통해 사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하나비즈닷컴, 엔트랙 등의 업체가 북한과 IT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나 국내 IT업계 불황, 북측 관련 산업기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다. 농·어업 분야

농·어업분야 경제협력사업은 인적·물적 교류의 유발효과가 크고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바람직한 협력형태이나, 북측의 농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민간차원의 협력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임가공 사업에 이어 북한 내수용 담배개발 및 완제품 담배수출을 추진하는 등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옥수수신품종 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2003년말까지 27차례 방북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지역 영농사업은 2000년 2월 첫 농산물을 출하한 이래 꾸준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품질도 좋아지고 있으나, 금강산 관광객의 감소로 잉여생산물의 판로개척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어업분야에서는 2000년 12월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어업협력을 제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으나,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의 단순교역과 달리 어업분야 협력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

<▲: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 \*: 승인취소된 기업>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우 (합영)	삼천리 총회사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남포	512만	'92.10. 5('95. 5.17)
고합물산 (합영,합작)	광명성 총회사	의류 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남포,나진, 선봉,평양	686만	'95. 5.17
한일합섬 (합영,합작)	조선은하 무역총회사	웨타, 봉제, 방직 등 4개 사업	"	980만	'95. 6.26
국제상사 (합영,합작)	"	신발	"	350만	'95. 6.26
▲ 녹십자 (합작)	광명성 총회사	의약품(유로키나제) 제조	평양 통일구역	311만	'95. 9.15('97.11.14)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시멘트 싸이로 건설	나진,선봉	300만	'95. 9.15
동룡해운 (단독투자)	해양무역회사	하역설비(크레인 등)	"	500만	'95. 9.15
삼성전자 (합작)	조선체신회사	나진선봉 통신센터	"	700만	'96. 4.27
▲ 태 창 (합영)	룡라888무역 총회사	금강산 샘물 개발	강원도 고성군	580만	'96. 4.27('97. 5.22)
대우전자 (합영)	삼천리총회사	TV 등 가전제품 생산	남포	640만	'96. 4.27
▲한국전력 공사	원자력총국	경수로건설지원사업	신포	4,500만→ 11,430.8만	'96. 7.15('97. 8.16→ '99. 8.10 변경)
▲ 미흥식품 (합영)	조선철산 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 가공	청진,함흥, 원산,남포	47만	'97. 5.22('98. 3.13)
* 신일피혁		피혁, 의류봉제	나진,선봉	300만	'97. 5.22
한 화(합작)	청운산 무역회사	PVC장판 제조	평양,남포	90만	'97. 5.22
LG전자/LG 상사(합영)	광명성 총회사	전자제품(컬러TV) 조립생산	평양	450만	'97. 5.22 '97.10.14 (변경승인)
▲ KT	체신성	경수로 건설 통신 지원사업	신포	14만	'97. 8. 1('97.8.1→ '01. 2. 5, '02. 5.28 변경)
삼성전자 (합영)	조선체신회사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생산	나진,선봉	500만	'97. 8. 1
코오롱상사 (합작)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 생산	평양,남포	400만	'97. 8. 1
신 원 (합작)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의류 봉제사업	평양	100만	'97. 8. 1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파라우수산 (합영)	조선은파산 무역상사	수산물 생산 가공	원산, 해주	300만	'97. 8. 1
금오식품 (합작)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	'97. 8. 1
한국토지공사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추 진위원회	나진 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나진, 선봉 (유현지구)		'97.10.14
대상물류 (단독투자)	"	나진 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운영	나진, 선봉 (동명지구)	420만	'97.10.14
삼천리자전 /LG상사 (합영)	광명성총회사	자전거 조립 생산	나진, 선봉	800만	'97.10.14
▲태영수산 LG상사 (합영)	"	가리비 양식 생산	나진, 원산	65만	'97.10.14 ( '98. 8.28)
▲한국의환 은행	경수로사업 대상국	경수로사업 부지 내 은행점포 개설	금호	.	'97. 11.6 ( '97.11.6)
▲(주)아자 커뮤니케이션 (합영)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평양 기타지역	편당 25만	'97.11.14 ( '98. 2.18)
(주)에이스 침대(합작)	청류무역회사	침대 및 가구 제조 판매	평양 락랑구역	425만	'98. 1. 9
롯데제과 (합영)	광명성총회사	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	평양	575만	'98. 1. 9
(주)광인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추 진위원회	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 간판, 내부벽면 부착광고 등)	평양 나진, 선봉	250만	'98. 2. 18
안흥개발 (합작)	조선56무역 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	'98. 3.13
▲두레마을영 농조합법인 (합작)	라선경제 협조회사	나진, 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200만	'98. 4. 8 ( '98. 7.27)
▲ 국제 옥수수재단 (조사 연구)	농업과학 연구원→ 농업과학원 ( '99.3.25)	새 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 '99.3.25)	'98. 6.18 ( '98. 6.18→ '01. 6.20 변경)
*(주)세원커뮤 니케이션		북한올림픽위원회스 폰서쉽대행		미정	'98. 8. 6
▲(주)현대건설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현대이산, 한국관광공사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금강산관광사업 ( '98. 9. 7)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99. 1.15)	금강산	9,583만 →1억33만 ( '99. 1.15) →1억8,739만 ( '01. 1.20) →20,532.9만 ( '03. 1.10)	'98. 8. 6 ( '98.9.7→ '99. 1.15 변경 '99. 4.16 변경 '01. 1.20 변경 '01. 6.23 변경 '03. 1.10 변경)
▲(주)코리아 랜드(합영)	묘향경제연합체	북한부동산개발(임대 분양) 및 건설업	평양	60만	'98. 8.28 ( '98. 8.28)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성화국제그 룹		원정국제자유시장 건설 운영 및 평양지역내 백화점운영	나진,선봉, 평양	190만	'98. 9.14
*아이엠시스 템		방송용 광고제작			'98. 10.17
▲백산실업 (합영)	선봉군 온실 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 농가 보급, 표고, 느타리 진주 등 버섯류 생산 수출	나진,선봉 (선봉군읍)	20.8만	'98.10.28 ( '98.10.28)
▲(주)현대시 스콤, KT, 온세통신	금강산국제관광 총회사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금강산 관광지역 및 평양	13만	'98.11.11 ( '98.11.11→ '00.11.20 변경 '01.10. 4 변경 '02. 5.28 변경)
(주)해주(합작)	광명성총회사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	'99. 1. 8
▲(주)평화 자동차(합영)	조선민홍 총회사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남포	5,536만	'99. 8.31 ( '00. 1. 7 →'00.10.21변경 '02.2.20변경)
▲한국전력공사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TKC)	금호지구	40.8억 (PWC금액 포함)	( '99.12.15)
▲삼성전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 S/W 공동개발	북경	72.7만 →154.4만 →226.7만	'00. 3.13 ( '00. 3.13, '01. 6.16, '02. 8.21, '03.10.14 변경)
▲(주)하나비 즈닷컴(합영)	평양정보센터	남북 프로그램 공동 개발	단동	200만	'01. 4.28 ( '01. 7.18)
▲(주)엔트랙 (합영)	광명성총회사	정보기술 공동제품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고려정보기술센터」 건 립	평양	400만	'01. 4.30 ( '01.8.22)
▲(주)G-한신	광명성총회사	북한내 유리제품 생산시설 설립운영	평양	290만	'01. 7.18 ( '01.10.16)
▲(주)아이엠 알아이	삼천리총회사	발포성수지 생산공장 설립	평양	70만	'01.10.16 ( '02. 8. 7)
▲국양해운	개선무역 총회사	해상운송사업 및 하역시설 개선사업	남포	61.9억원	'01.11.21 ( '01.11.21)
*(주)훈넷	범태,조선장생 무역총회사	인터넷 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	평양	20만	'01.12.29 ( '01.12.29)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국가핵안전감독 위원회	경수로 건설 관련 핵안전 규제사업	-	-	'02. 3. 7 ( '02. 3. 7)
(주)서천어패럴	광명성총회사,조 선봉화총회사	피복제조	남포	41.2만	'02. 5.13
한국토지공사, (주)현대아산	조선아시아태평 평화위원회,민경 련,삼천리총회사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사업	개성	18,500만	'02.12.27
146 현대아산 ▲평화항공 여행사	조선아시아태평 평화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개성관광사업 평양, 백두산 관광사업	개성 평양, 백두산	-	'03. 3.18 '03. 8.25
▲대한광업 진흥공사	삼천리총회사	정춘호연광산 공동개발	황해 연안	510만	'03. 9. 3 ( '03.10.14)
G한신-경평 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 가공공장 설립	평양 락랑구역	27억원	'03.10.31



## 2.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7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월에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2000년 8월 8일,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남북철도연결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철도·도로연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측은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착수하여 철도는 2001년 12월말 완료하였으며 최북단 역인 도라산 역사는 2002년 4월 30일 준공하게 되었다.

이후 2002년 8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의 착공 등에 합의함에 따라 2002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였다.

2002년 8월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북측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자재·장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제공을 시작하여 2003년 10월말에 철도·도로 기초공사에 필요한 1차분 자재·장비 제공을 완료하였다.

정부는 북측에 제공된 자재·장비의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2003년 3월부터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을 17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철도·도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제공된 자재·장비는 북측 공사 진행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착공식 이후 남북은 공사에 필요한 실무적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2003년 2월 11일에는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2003년 5월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남북 철도 궤도 연결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3년 6월 14일에 분단반세기 동안 끊어져 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궤도를 남북이 동시에 연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연결행사는 실제로 열차가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조속히 완공한다는 쌍방의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남북간 철도·도로 공사가 「개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남북 철도 궤도연결행사 개요]

구 분		우리측 참석인원	북측 참석인원
경의선	주관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병철 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참석 인원	○ 행사인원 : 23명 ○ 기 자 : 10명 ○ 작업인원 : 15명	○ 행사인원 : 12명 ○ 기 자 : 6명 ○ 작업인원 : 25명
동해선	주관	손봉균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박정성 철도성 국장
	참석 인원	○ 행사인원 : 23명 ○ 기 자 : 10명 ○ 작업인원 : 15명	○ 행사인원 : 13명 ○ 기 자 : 7명 ○ 작업인원 : 30명



[동해선 철도 궤도연결행사]

경의선·동해선 철도 궤도연결행사는 △레일 조정 → △코일스프링 채우기 → △이음매판 설치 → △연결부 볼트 체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003년 8월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남북은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철도 궤도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를 2003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2003년 11월말 개최된 제7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실무접촉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구간 상호방문을 합의하고 2003년 12월 2일에는 동해선, 12월 8일에는 경의선 철도·도로 구간 상호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남북의 철도·도로 공사 관계자들은 상대측의 공사방법, 공사 진행상황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는 2002년 12월 31일, 도로는 2003년 10월 31

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해선 철도·도로는 사전 환경평가 및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노반공사 및 궤도부설, 포장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북측은 우리측이 제공한 자재·장비를 사용하여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경의선 철도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약 3.5km까지, 동해선 철도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약 4.7km까지 궤도 부설을 완료하고 현재 역사부지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로는 노반공사 및 구조물 공사(교량 등)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는 포장공사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개요]

노선	종류	규모	구 간	거리(Km)
경의선	철도	단선	문산역(남)—개성역(북)	27.3
	도로	4차선	통일대교북단(남)—개성(북)	12.1
동해선	철도	단선	저진(남)—온정리(북)	27.5
	도로	2차선	송현리(남)—고성(북)	24.2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된 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열차·차량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2003년 1월 4일 서명·교환을 완료하였으며, 열차 운행합의서는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북측과 협의하여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보았으며 2003년 12월에 개최된 제8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실무접촉에서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하였다.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요지>

### □ 기본 원칙

- 쌍방은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의 신변안전 및 편의보장
-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쌍방은 상대측 운전사와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

### □ 차량의 운행절차 및 방법

- 상대측 지역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 운행하여야 함.
-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법규,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동위원회에서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함.
- 쌍방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음. 취소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운전사와 차량을 돌려보냄.
-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정지이유가 소멸된 경우 운행재개 허용

### □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 쌍방은 사고 발생시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 보장
- 차량사고의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고,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함.
- 합의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조사결과는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함.

아울러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왕래하는 인원·물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북은 2004년 상반기에 군사분계선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차량운행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서명·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육로관광, 자재·장비 수송, 평양체육관행사 인원 등의 통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철도·도로를 이용한 인적·물적 왕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활한 세관(C)·출입심사(I)·검역(Q) 등 출입심사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 실무자로 경의선 출입관리시설(CIQ) 실무지원팀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계획마련과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하여 남북간을 왕래하는 인원, 물자의 출입, 세관, 검역에 대비하여 본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CIQ시설을 통일전망대 부근에 설치하였으며, 경의선도로 CIQ시설을 설치 완료하였다.

특히 육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는 인원, 물자에 대한 원활한 출입업무를 위해 남북출입사무소를 2003년 11월 개소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간 육로이용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구간은 지난 50여년간 인적왕래가 없었던 지역으로서 정부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및

생태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생태계보전공동조사단」을 발족하였다. 이 조사단은 지형·지질·동식물 등 6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 동·식물 생태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간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이었던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계를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축으로 부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철도망이 연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로의 연계수송도 가능해진다.

특히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hub)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동해선은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의 값싸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

동력과 한국, 일본 등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되어 유럽연합(EU) 같은 거대한 경제권 구축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 3. 개성공단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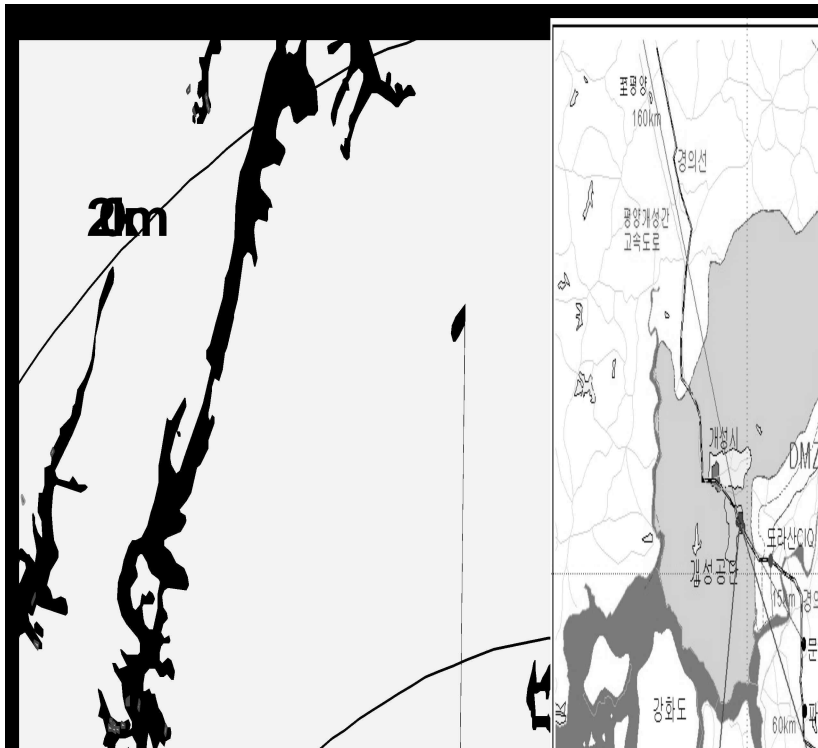
우리기업이 주로 입주하게 되는 북한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개발사업(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북한 개성시와 판문군 평화리 일대 약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우선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1단계 1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2000년 8월 9일 현대-아태간 합의서 체결 이후 공단조성에 필요한 설계·측량 등의 작업과 병행하여 공단개발을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사업자 및 남북 당국간 지속적 노력으로 2004년 초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목표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 [개성공단개발사업도]





사업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초청형식으로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거행한 이후 남북 당국 및 사업자간 제도적 정비 관련 협의를 갖고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측량·설계 등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공사는 2004년 5월 완공 예정으로 개성 현지에서 본격 공사 착수에 대비하여 2003년 12월 11일 「개발사무소」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동년 12월 22일 현대아산은 본격시공에 대비한 「중기관리사무소」를 완공하여 공사 준비를 위한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북측도 공단개발이 경제회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임금결정 과정, 하위규정 등 제도정비 과정에서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002년 11월 27일 공포된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 10개중 개발, 기업창설, 노동, 세금, 관리기관 구성·운영, 출입·체류·거주, 세관규정 등 7개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4개 규정(부동산, 외환, 광고, 회계규정)도 조만간 제정할 것으로 보여 공단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남북은 2002년 12월 8일 개성공단 통관·통신·검역 합의를 채택하고 2003년 8월 20일 투자보장 등 4대 경험합의를 발효하여 안정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2003.11.5-8)에서 2004년 초부터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본격 공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공단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3년 내에 북측의 하위규정 제정·공포, 남북간 통행 합의서 타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완료하고 2004년 상반기내에 개성공단에 「남북경협 협의사무소」 개설 및 「시범단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2003.12.17-20)에서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통신연결 등에 대한 합의를 추진한 바 통행합의서는 신변안전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남북경협제도실무접촉(2004.1.27-29)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여 채택함으로써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 [개성공단 개발사업 추진경과]

구 분	추진내용	일자
사업자간 조치	o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2000. 8.22
	o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2003. 6.30
	o 1단계 100만평 측량·토질조사 완료	2003. 8. 8
	o 중기관리사무소(현대) 설치 승인	2003.12. 1
	o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	2003.12.11
북측 조치	o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2002.11.27
	o 토지이용증 발급	2002.12. 1
	o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공포	2003. 6.29
	o 「노동」 및 「세금」 하위규정 제정 공포	2003.10. 1
	o 「관리기관」, 「출입 체류 거주」, 「세관」규정 제정 공포	2003.12.17
남북간 합의	o 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 * 남북경추위 산하 개성공단 실무협의회(2차)	2002.12. 8
	o 투자보장 등 4대 경험합의서 발효	2003. 8.20
	o 경추위 제7차 회의, '04년 초부터 본격공사 착수 합의 - 금년내 제도적장치 마련, 내년 상반기내 경협사무소 시범단지 개발완료 등	2003.11. 8
	o 개성공단 금강산 통행합의서 채택 * 남북경추위 산하 경험제도 실무접촉	2004. 1.29

##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요지]

### □ 개성공업지구 개발

- 중앙지도기관이 개발업자 선정, 개발업자가 「개발총계획」 작성
- 중앙지도기관이 개발구역내 주민이주, 건물철거 담당, 소요비용은 개발업자 부담
- 개발업자는 지구내 △에너지 공급사업 △창고 보관수송 △건설사업 △관광오락사업 △광고사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사업권 보유
  - \*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위탁 가능
- 중앙지도기관이 노력보장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보장

###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

-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모든 분야에서 단독 또는 공동투자 가능
  - \* 기업의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 이상
- 관리기관이 기업 창설승인등록영업종변경허가 담당
- 주식채권발행 허용, 물자 반출입 신고제, 북한 기업·단체와 연계사업도 가능

### □ 지구의 세금

- 공업지구내 창설기업 및 182일 이상 체류 개인이 납세자
- 기업소득세 : 결산이윤의 14%(장려부문은 10%) 또는 판매수입액의 2%
  - \* 장려생산부문 : 이윤 발생년부터 5년 면제, 3년 50% 감면, 서비스부문 : 2년 면제, 1년 50% 감면
- 개인소득세 : 노동소득의 종류·금액에 따라 4~20% 차등 과세
- 자동차세 : 차종에 따라 \$ 20-60

#### □ 세 관

- 물자 반출입 원칙 : 신고제(신고만으로 물자 반출입 금지품 사전지정)
  - 휴대품은 구두신고로 갈음, 외화는 신고 없이 반출입
- 자주 왕래하는 운수수단은 세관등록출입(세관수속 생략)
- 세관검사 편의보장
  - 도착지/출발지 검사 원칙, 표본검사 가능, 휴대품은 기계검사(필요시 생략)
- 관세면제 :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 위탁가공물자

#### □ 공업지구의 노동

- 복측 인력 채용원칙, 필요시 남측 및 해외동포·외국인 채용 허용
  - \* 중앙지도기관은 관리기관이 요청한 규모의 인력 공급 보장
- 기업은 노력알선기업에서 공급한 인력중 선발된 인원에게 대해 종업원대표자와 노동시간, 휴식, 노동보호, 노동규율 등에 관한 노동계약 체결
- 기업이 채용한 인력은 노력동원 금지(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사유 제외)
- 임금(월50불)·사회보험료 15%(\$ 7.5)·연 5%미만 임금인상·주 48시간 노동 등
- 노동분쟁은 △당사자 협의 △노동중재위 △중앙지도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신고

#### □ 관리기관 설립운영

- 관리기관 : 개발업자가 설립
  - 투자조건조성/투자유치, 기업창설승인/등록, 건설허가, 부동산/수송수단등록, 출입증발급, 사업준칙 작성 등
- 이사장(1명)
  - － 역할 : 관리기관 대표, 사업전반 관할, 기구/정원수 제정, 성원 임명/해임
  - － 임명/해임 : 관리기관 사업준칙에 따름(초대이사장은 개발업자가 임명)
- 운영자금 : 수수료 등 수입으로 충당(예산 자체 편성, 집행)

#### □ 출입·체류거주

- 적용대상 : 남측 지역에서 직접 출입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
- 지구출입당국 : 출입통로 지장변경, 체류·거주신분 등록 및 변경  
관리기관 : 출입증명서(출입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 등) 발급
  - \* 테러범,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전염병자, 위조·횡손 증명서 소지자 출입금지
- 자동차 :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아 지정통로로 출입, 열차 : 시간표에 따라 출입
- 출입절차 : 출입증명서 소지출입통로로 출입, 신속한 출입·세관심사 및 검역
  - \* 지구 → 북한 다른 지역 출입시 별도 사증 발급
- 체류·거주 : 단기(90일 미만), 장기(90일 이상), 거주(1년 이상)으로 구분, 등록대 상자는 48시간 이내 체류등록, 1년 이상 거주시 거주등록
- 체류등록 제외 : 7일 이하 체류자, 남측체류 국제기구, 외국기관 성원, 관광객 등

#### 4.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금강산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출항하면서 시작되었다. 금강산관광은 사업자의 자금난, 육로관광·특구지정 등 관광 활성화 조치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2002년 초에는 관광객이 월 1천명까지 감소하는 등 중단위기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2001년 6월에는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한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2002년 1월에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4월부터 학생, 교사, 이산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통일교육강사 등의 금강산 관광경비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실시되면서 2002년 4월부터 학생, 교사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늘어났다. 정부는 육로관광, 특구개발 등이 본격 추진될 때까지 경비지원을 지속할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북한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때에 경비지원을 검토한다는 조건 하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경비지원이 2003년 1월 1일부터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금강산관광은 관광객 감소,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3년 4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북측이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이유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을 금지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2003년에는 육로관광이 시작되고 특구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는 등 관광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 가. 육로관광 실시

2002년 12월 11일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되고 2003년 1월 27일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동·서해지구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타결되면서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사전답사(2003.2.5-6), 시범관광(2003.2.14-16)에 이어 일반인 대상 육로관광이 3차례 실시되었다.

분단 50여년만에 비무장지대가 민간인에게 개방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북측이 동해선 철도·도로공사를 위해 임시도로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면서 3월 2일부터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 및 사업자는 당국간 회담, 사업자간 협의 등을 통해 북측에 육로관광 재개를 계속 촉구하였다. 그 결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육로관광 재개에 합의한 데 이어, 양측 사업자가 구체적인 재개일정을 확정함으로써, 9월 1일부터 육로관광이 재개되었다. 2003년 12월 현재 총 34,432명이 육로로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육로 관광객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위치한 남측 출입사무소(CIQ)를 출발하여 버스로 비무장지대를 지나게 된다. 출발할 때는 해로를 이용하고 돌아올 때는 육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이틀에 한번씩 실시되고 있으며, 관광일정은 2박3일이다. 성수기인 10월에는 매일 관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육로관광은 해로관광에 비해 관광요금이 10만원 정도 인하되고 이동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이점이 있어,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남북관광교류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



는 한편,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협력 증진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매월 1만여명 내외의 남한 주민이 비무장지대를 넘나들면서, 매일 남북한 군사당국자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금강산 육로관광은 중장기적으로 설악-금강 연계관광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관광지구 개발사업 추진

북측은 2002년 11월 25일 「금강산관광지구법」(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정령 제3,413호)을 발표한데 이어, 2003년 6월 29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개발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기업창설운영규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 8일에는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금강산관광지구 경계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 고성·해금강·삼일포·통천 등이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지역에서는 간소한 절차로 출입, 투자 및 영업, 관광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광지구내에서의 자유왕래, 투자자산 보호 등 관광객 및 투자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이 법에 따라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자로 지정되고 이 지역에 대해 50년간 토지이용권을 확보하였다. 현재 현대아산은 WTO(세계관광기구) 등과 협조하여 금강산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2004년도 상반기 중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은 중장기적인 개발전략과 세부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현대아산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호텔,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계획이 금강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5. 대북 식량차관 제공

정부는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준다는 인도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40만톤의 쌀을 차관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2003.5.23)에서 쌀 4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6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1억1천만달러 범위이내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의결하였다. 식량차관금액은 톤당 미화 265불을 기준으로 북한과 합의한 1억 600만달러이다. 차관제공조건은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율 1%로 2000년, 2002년과 동일하다.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합의서 요지(2003.5.23)]

1.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US \$265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 부담,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3.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 포함 30년,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북측은 남측의 분배투명성 확인 보장 등 쌀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8.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차관형식의 식량제공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식량차관 제공과 관련하여 2003년 6월 26일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측은 식량인도회사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북한은 식량인수회사로 수매양정성 산하 청길무역회사를 선정하여 2002년에 이어 인도·인수 업무를 대행하도

록 하였다.

수송은 1항차가 7월 3일 목포에서 남포로 출항하였고, 12월 15일 마지막 55항차까지 약 5개월여에 걸쳐 남포, 송림, 해주, 원산, 흥남, 청진 등 총 6개 항구로 전달하였다.

[북한 항구별 전달물량]

항 구	남포	원산	흥남	청진	송림	해주	계
물량(천톤)	208.2	51.8	50	45	30	15	400
항차수	21	11	8	7	5	3	55

한편, 정부는 제공되는 식량의 분배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경주하였다. 북한은 쌀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하며, 매 분배문건 통보 후 10일 이내에 남측 인원들이 동·서해 각각 한 곳 이상의 분배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매 10만톤 단위로 11개 시·도, 194개 시·군·구역에 대한 분배결과를 통보해 왔으며, 우리측은 매 10만톤마다 동·서 3곳씩 총 4차에 걸쳐 총 59명이 12곳의 식량공급소를 방문하였다.

[분배현장확인 개요]

구분	지역	일시	식량공급소	구분	지역	일시	식량공급소
1차	청진	9.23	청암구역 락양	3	남포	12.3	천리마구역 제7
	남포	9.30	와우도동		청진	12.4	포항구역 청송
	홍남	10.1	룡성		홍남	12.6	운성1동
2차	해주	10.26	룡당동	4차	원산	12.10	문천시 해방산동 제련
	원산	10.28	봉춘동		남포	12.16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성1동
	평양	11.7	만경대구역 축전2동		원산	12.17	강원도 원산시 장덕

분배현장확인 결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북한은 주민들에게 우리 쌀을 kg당 46원, 1인당 하루에 300~380g, 월 2회 공급하고 있었으며, 북 주민들은 남한 동포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품질이 괜찮으나 풀기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우리 쌀의 군전용 우려에 대해 북한의 식량분배 관계자는 “군은 자체 생산한 식량만 공급받고 있으며, 다만 군이 수송에 협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최영건은 12월 1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쌀 40만톤 수송이 귀측의 협력하에 성과적으로 끝난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사의를 표하였다.

## 제2절 남북교역 및 수송·통신

### 1. 남북간 물자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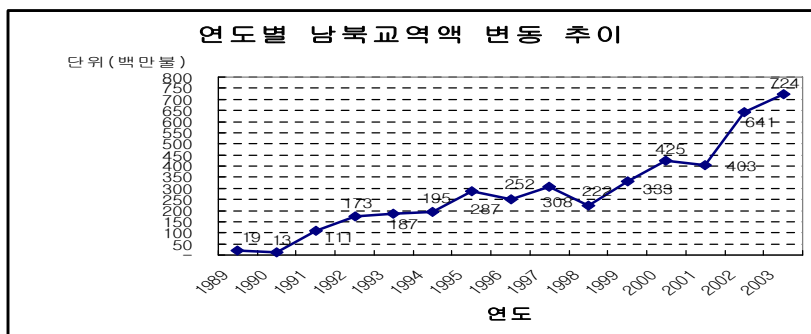
#### 가. 교역규모

2003년 남북교역은 4개 경협합의서 채택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힘입어 전년보다 12.9% 증가한 7억 2천만달러에 이르렀다. 반입은 2억 8,925만달러로 전년보다 5.5% 증가하고 반출도 4억 3,496만달러로 17.5% 증가하였다. 반입은 북한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반입 품목이 제한되어 그 증가율이 낮은 반면, 반출은 경협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물자의 소요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2003년도 전체적인 교역규모의 증가는 전년에 이은 위탁가공교역 및 상업적 매매거래가 4억 867만달러로 전년보다 19.2% 증가하는 등 거래성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와 인도적 대북지원, 식량차관 제공,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 지원 등 비거래성교역이 3억 1,553만달러로 5.6%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교역규모가 2002년 6억달러, 2003년 7억달러에 이르게 됨으로써 1989년과 비교할 경우 교역규모는 38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상대로 부상하게 되었다.



### [남북교역 현황]

(기준일/단위 : 2003.12.31,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3	105,719	-	16	5,547	300	57	111,266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572	92	173,426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698	103	186,59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975	158	194,547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644	244	287,291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3,383	258	252,039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991	36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4,810	449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6,510	488	333,437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7,394	578	425,148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7,754	549	402,95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8,796	572	641,73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11,209	588	724,217
계	31,624		2,355,544	27,562		1,939,578	59,186		4,295,122

\* 1995년 교역실적은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 나. 유형별 남북교역

2003년도 거래성교역(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은 4억 867만달러로 전년대비 19.2% 증가하였고, 전체교역액의 56.4%를 차지하였다. 이중 반입은 2억 8,908만달러로 전년대비 7.0%, 반출도 1억 1,959만달러로 64.3% 각각 증가하였다.

거래성교역중 상업적 매매거래는 2억 2,367만달러로 전년대비 30.2%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30.9%, 거래성교역의 54.8%를 차지하였고, 위탁가공교역은 1억 8,500만달러로 전년대비 8.1%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25.5%, 거래성교역액의 45.2%를 차지하였다.

또한 비거래성교역은 3억 1,553만달러로 전년대비 5.6%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43.6%를 차지하였다.

주요 유형별로는 인도적 지원물자인 대북지원이 2억 7,065만달러로 비거래성교역액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수로 사업 2,376만달러, 금강산 관광사업 1,610만달러, 협력사업 501만달러로 각각 비거래성 교역액의 7.5%, 5.1%, 1.6%를 차지하고 있다.

###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기준일/단위 : 2003.12.31, 천달러)

구 분		반 입	반 출	합 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가율
거	상 업 적 거 래	18,154	784	18,938	35.0	11.5
		(16,405)	(579)	(16,984)	(22.9)	
래	위탁가공	6,789	6,403	13,191	24.4	0.7
		(6,691)	(6,413)	(13,103)	(17.7)	
소 계		24,943	7,187	32,129	59.4	6.8
		(23,096)	(6,992)	(30,087)	(40.6)	
비	경수로사업	-	123	123	0.2	-93.3
		(0)	(1,838)	(1,838)	(2.5)	
	금강산관광사업	-	2,684	2,684	5.0	38.4
		(1)	(1,938)	(1,939)	(2.6)	
거	협 력 사 업	-	69	69	0.1	-92.5
		(31)	(888)	(919)	(1.2)	
래	KEDO 중유	-	-	-	0.0	-
		(0)	(0)	(0)	(0)	
	대 북 지 원	-	19,084	19,084	35.3	-51.4
		(0)	(39,277)	(39,277)	(53.0)	
소 계		-	21,960	21,960	40.6	-50.1
		(32)	(43,941)	(43,973)	(59.4)	
총 계		24,943	29,146	54,089	100.0	-27.0
		(23,127)	(50,933)	(74,060)		

\* ( )안은 2002년 금액임.

### 다. 남북간 교역수지

2003년도 교역 수지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1억 4,571만달러 흑자이나 비거래성 반출입을 제외한 실질교역 수지는 1억 6,941만달러로 적자이다. 1989년부터 2003년까지 누적 명목 수지는 남한이 4억 1,596만달러 적자이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누적 실질 수지는 이보다 훨씬 적자 폭이 큰 16억 7,283만달러이다.

이러한 교역 수지 구조는 금강산 관광사업, 비료지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와 식량차관 등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교역수지의 불균형은 북한경제의 반입 여력이 확보되고, 청산결제 등을 통해 교역품목이 확대되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남북한간 교역수지]

(기준일/단위 : 2003.12.31,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교역수지		비 고
1989	18,655	69	18,724	-18,586		-
1990	12,278	1,188	13,466	-11,090		-
1991	105,719	5,547	111,266	-100,172	(-100,172)	1991~2003 연평균 -29,714 (-126,397)
1992	162,863	10,563	173,426	-152,300	(-152,300)	
1993	178,167	8,425	186,592	-169,742	(-169,742)	
1994	176,298	18,249	194,547	-158,049	(-158,049)	
1995	222,855	64,436	287,291	-158,419	(-169,414)	
1996	182,400	69,639	252,039	-112,761	(-127,016)	
1997	193,069	115,270	308,339	-77,799	(-133,049)	
1998	92,264	129,679	221,943	37,415	(-40,629)	
19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53,929)	
2000	152,373	272,775	425,148	120,402	(-61,315)	
2001	176,170	226,787	402,957	50,617	(-110,639)	
2002	271,575	370,155	641,730	98,580	(-197,419)	
2003	289,252	434,965	724,217	145,713	(-169,419)	
합 계	2,355,544	1,939,578	4,295,122	-415,963	(-1,672,834)	

\* ( )내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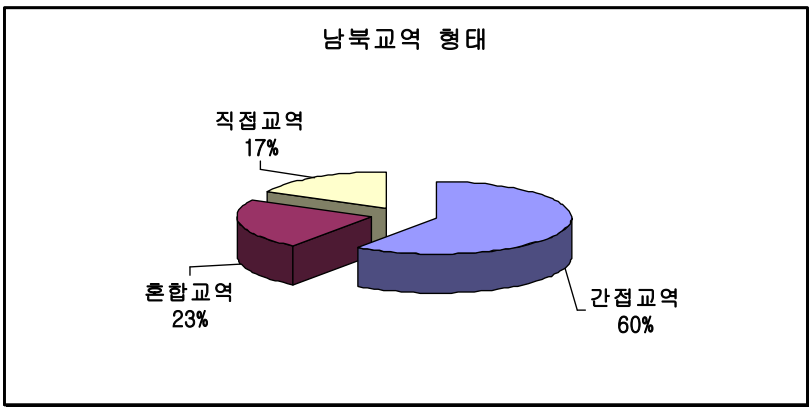
## 라. 교역형태·품목

남북교역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통신 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부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003년 9월 300여개의 남북교

역업체를 대상으로 교역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교역 당사자간 직접 계약하는 직접교역 업체수의 비율은 17.4%인 반면,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은 60.1%, 직접교역과 간접교역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교역은 22.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2003년 8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남북한간 직거래 확대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후속 협의를 통해 2004년 상반기중에 개성공단에 직교역을 위한 경협 협의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같이 직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남북간 직교역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업체수 기준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72개, 2003년 588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3년의 경우 반입 품목수는 186개로 전년에 비해 18개 감소한 반면, 반출 품목수는 530

개로 35개 증가하였다.

###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기준일/단위 : 2003.12.31, 개)

연 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품목수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72	588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반입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농림수산물, 섬유제품, 철강·금속제품 순이다.

농림수산물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44.2%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33.4%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금속제품은 교역 초기에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11.3%를 차지하였다.

## [연도별 반입품목 현황]

(기준일/단위 : 2003.12.31, 천달러)

연 도	농 림 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제 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 품	철강금속 제 품	기 계 류	전자전기 제 품	잡 제 품	합 계
1989	2,334 (12.5)	1,094 (5.9)	104 (0.6)	4 (0.0)	5 (0.0)	0 (0.0)	15,072 (80.8)	24 (0.1)	0 (0.0)	19 (0.1)	18,655 (100.0)
1990	5,572 (45.4)	58 (0.5)	1,730 (14.1)	0 (0.0)	0 (0.0)	87 (0.7)	4,529 (36.9)	14 (0.1)	0 (0.0)	289 (2.4)	12,278 (100.0)
1991	9,910 (9.4)	21,966 (20.8)	5,732 (5.4)	0 (0.0)	0 (0.0)	171 (0.2)	67,303 (63.7)	17 (0.0)	0 (0.0)	620 (0.6)	105,719 (100.0)
1992	16,880 (10.4)	44,007 (27.0)	12,865 (7.9)	0 (0.0)	3,385 (2.1)	657 (0.4)	83,514 (51.3)	539 (0.3)	4 (0.0)	1,012 (0.6)	162,863 (100.0)
1993	11,787 (6.6)	87,145 (48.9)	1,182 (0.7)	0 (0.0)	8,329 (4.7)	754 (0.4)	63,147 (35.4)	0 (0.0)	80 (0.0)	5,744 (3.2)	178,167 (100.0)
1994	15,189 (8.6)	75,531 (42.8)	1,246 (0.7)	0 (0.0)	17,923 (10.2)	2,162 (1.2)	63,069 (35.8)	0 (0.0)	0 (0.0)	1,178 (0.7)	176,238 (100.0)
1995	21,270 (9.5)	86,412 (38.8)	343 (0.2)	3 (0.0)	28,639 (12.9)	2,633 (1.2)	81,467 (36.6)	9 (0.0)	6 (0.0)	2,074 (0.9)	222,855 (100.0)
1996	23,177 (12.7)	64,714 (35.5)	394 (0.2)	58 (0.0)	44,459 (24.4)	3,169 (1.7)	44,260 (24.3)	91 (0.0)	1,697 (0.9)	382 (0.2)	182,400 (100.0)
1997	27,458 (14.2)	62,682 (32.5)	130 (0.1)	65 (0.3)	47,091 (24.4)	2,614 (1.4)	47,946 (24.8)	1,002 (0.5)	3,140 (1.6)	342 (0.2)	193,069 (100.0)
1998	21,843 (23.7)	2,368 (2.6)	172 (0.2)	45 (0.0)	38,802 (42.1)	3,852 (4.2)	20,254 (22)	688 (0.8)	3,518 (3.8)	711 (0.8)	92,264 (100.0)
1999	48,066 (39.5)	2,230 (1.8)	480 (0.4)	1 (0.0)	45,741 (37.6)	3,933 (3.2)	16,120 (13.3)	1,557 (1.3)	2,850 (2.3)	626 (0.5)	121,604 (100.0)
2000	71,834 (47.1)	262 (0.2)	620 (0.4)	180 (0.1)	53,683 (35.2)	3,339 (2.2)	11,747 (7.7)	1,754 (1.2)	8,251 (5.4)	683 (0.5)	152,373 (100.0)
2001	90,028 (51.1)	3,641 (2.1)	51 (0.0)	573 (0.3)	54,937 (31.2)	5,413 (3.1)	9,887 (5.6)	2,285 (1.3)	8,752 (5.0)	604 (0.3)	176,170 (100.0)
2002	99,901 (36.8)	8,600 (3.2)	603 (0.2)	548 (0.2)	85,849 (31.6)	3,463 (1.3)	18,821 (6.9)	1,806 (0.7)	9,534 (3.5)	42,450 (15.6)	271,575 (100.0)
2003	127,846 (44.2)	17,139 (5.9)	1,003 (0.3)	521 (0.2)	96,527 (33.4)	3,814 (1.3)	32,743 (11.3)	831 (0.3)	8,677 (3.0)	149 (0.1)	289,252 (100.0)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시작과 함께 섬유류의 반출이 늘어나 지금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최근에는 식량·비료 지원 등으로 인해 농림수산물, 화학제품의 반출 비중이 높아졌다. 2003년 주요 반출품목은 농림수산물 28.9%, 화학공업제품 21.0%, 섬유류 20.5%, 잡제품 8.3%, 철강금속제품 6.5%, 기계류 6.4% 등이다.

## [연도별 반출품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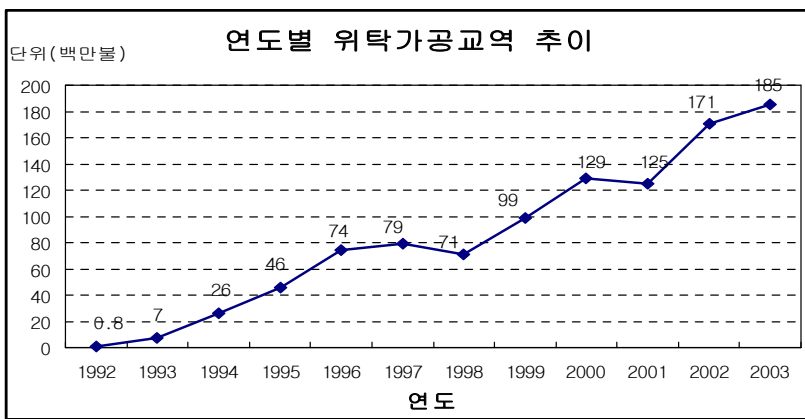
(기준일/단위 : 2003.12.31, 천달러)

연 도	농 림 수산물	광산물	화학공 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석유류	생활 용품	철강금 속제 품	기계류	전자전 기 제 품	잡제품	합 계
1989	0 (0.0)	0 (0.0)	0 (0.0)	0 (0.0)	6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69 (100.0)
1990	10 (0.8)	0 (0.0)	0 (0.0)	0 (0.0)	83 (7.0)	0 (0.0)	0 (0.0)	1,085 (92.2)	0 (0.0)	0 (0.0)	1,188 (100.0)
1991	1,607 (29.0)	1,392 (25.1)	1,819 (32.8)	216 (3.9)	66 (1.2)	0 (0.0)	0 (0.0)	0 (0.0)	447 (8.1)	0 (0.0)	5,547 (100.0)
1992	64 (0.6)	0 (0.0)	5,348 (50.6)	2,348 (22.2)	738 (7.0)	85 (0.8)	1,957 (18.5)	22 (0.2)	0 (0.0)	0 (0.0)	10,533 (100.0)
1993	69 (0.8)	0 (0.0)	920 (10.9)	313 (3.7)	5,886 (69.9)	64 (0.8)	260 (3.1)	0 (0.0)	584 (6.9)	330 (3.9)	8,425 (100.0)
1994	3,302 (18.1)	0 (0.0)	1,584 (8.7)	71 (0.4)	11,835 (64.9)	353 (1.9)	274 (1.5)	67 (0.4)	149 (0.8)	613 (3.4)	18,249 (100.0)
1995	9,294 (14.4)	12,264 (19.0)	1,465 (2.3)	1,594 (2.5)	35,012 (54.3)	2,289 (3.6)	185 (0.3)	1,548 (2.4)	262 (0.4)	521 (0.8)	64,436 (100.0)
1996	6,713 (9.6)	12,783 (18.4)	3,394 (4.9)	1,757 (2.5)	37,648 (54.1)	3,089 (4.4)	290 (0.4)	932 (1.3)	2,200 (3.2)	833 (1.2)	69,639 (100.0)
1997	16,988 (14.7)	29,322 (25.4)	3,977 (3.5)	4,774 (4.1)	35,055 (30.4)	4,074 (3.5)	3,951 (3.4)	12,986 (11.3)	3,559 (3.1)	585 (0.5)	115,270 (100.0)
1998	19,634 (15.1)	20,551 (15.8)	6,330 (4.9)	3,540 (2.7)	29,675 (22.9)	4,319 (3.3)	9,475 (7.3)	28,903 (22.3)	5,708 (4.4)	1,544 (1.2)	129,679 (100.0)
1999	17,037 (8.0)	42,629 (20.1)	51,409 (24.3)	3,204 (1.5)	38,005 (17.9)	6,363 (3.0)	17,017 (8.0)	26,749 (12.6)	7,480 (3.5)	1,939 (0.9)	211,832 (100.0)
2000	26,067 (9.6)	16,204 (5.9)	100,363 (36.8)	4,221 (1.5)	43,259 (15.9)	6,389 (2.3)	14,002 (5.1)	32,242 (11.8)	27,951 (10.2)	2,079 (0.8)	272,775 (100.0)
2001	32,520 (14.3)	5,760 (2.5)	69,932 (30.8)	3,399 (1.5)	52,615 (23.2)	2,751 (1.2)	16,697 (7.4)	26,466 (11.7)	15,272 (6.7)	1,375 (0.6)	226,787 (100.0)
2002	110,197 (29.8)	5,103 (1.4)	89,617 (24.2)	4,115 (1.1)	67,257 (18.2)	5,507 (1.5)	26,365 (7.1)	37,867 (10.2)	22,116 (6.0)	2,011 (0.5)	370,155 (100.0)
2003	125,508 (28.9)	6,296 (1.4)	91,406 (21.0)	5,758 (1.3)	89,025 (20.5)	3,585 (0.8)	28,079 (6.5)	27,900 (6.4)	21,111 (4.9)	36,298 (8.3)	434,965 (100.0)



##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에 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제품을 재반입하고 북측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교역 형태이다. 2003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8,500만달러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다. 위탁가공교역액은 전체교역액의 25.5%, 거래성교역액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 [위탁가공교역 현황]

(기준일/단위 : 2003.12.31,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 체	위탁 가공	구성 비	전 체	위탁 가공	구성 비	전 체	위탁 가공	구성 비
1989	18,655	-	-	69	-	-	18,724	-	-
1990	12,278	-	-	1,188	-	-	13,466	-	-
1991	105,719	-	-	5,547	-	-	111,266	-	-
1992	162,863	638	0.4	10,563	200	1.9	173,426	839	0.5
1993	178,167	2,985	1.7	8,425	4,023	47.8	186,592	7,008	3.8
1994	176,298	14,321	8.1	18,249	11,343	62.2	194,547	25,663	13.2
1995	222,855	21,174	9.5	64,436	24,718	38.4	287,291	45,892	16.0
1996	182,400	36,238	19.9	69,639	38,164	54.8	252,039	74,402	29.5
1997	193,069	42,894	22.2	115,270	36,175	31.4	308,339	79,069	25.6
1998	92,264	41,371	44.8	129,679	29,617	22.8	221,943	70,988	32.0
1999	121,604	53,736	44.2	211,832	45,883	21.7	333,437	99,620	29.9
2000	152,373	71,966	47.2	272,775	57,224	21.0	425,148	129,190	30.4
2001	176,170	72,579	41.2	226,787	52,345	23.1	402,957	124,924	31.0
2002	271,575	102,789	37.8	370,155	68,388	18.5	641,730	171,177	26.7
2003	289,252	111,639	38.6	434,965	73,370	16.9	724,217	185,009	25.5
합계	2,355,544	572,330	24.3	1,989,578	441,451	22.8	4,255,122	1,013,780	23.6

2003년의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수는 109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100개 이상 유지하고 있어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신규 참여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위탁가공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역규모가 1억 5,472만달러로 위탁가공교역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류와 1,574만달러로 8.5%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전기제품의 초기 생산설비의 반출이 완료되어 원·부자재 반

출과 완제품 반입이 본 궤도에 오른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현황]

(기준일/단위 : 2003.12.31, 개)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업체수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109

### 3. 수송·통신

2003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2,022회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는 877회로 전년대비 9.9%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는 1,145회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다. 이중 우리 국적선의 운항횟수는 360회로 전체의 17.8%를 차지하였다. 또한, 남북간에는 물자수송(인천-남포, 부산-나진)과 인원수송(속초-장전, 속초-양화)을 위해 4개의 정기선이 운항중이다.

###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1994. 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남→북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798	877	4,688
북→남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1,029	1,145	6,319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11,007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남북 직항로를 최초

로 운항한 이후 2000년 43회, 2001년 19회, 2002년 67회 운항한데 이어 2003년에는 평양관광객 수송 등 남→북 55회, 북→남 56회, 총 111회 운행되었다.

#### [남북간 항공기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계
남→북	20	8	33	55	116
북→남	23	11	34	56	124
계	43	19	67	111	240

남북간 통신망은 2003년에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남북 상황실간 2회선이 직접 연결되었고, 금강산관광 지원용, 개성 현대중기관리사무소용 각 2회선이 위성을 통해 간접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2003년 말 현재 직접 33회선, 간접 31회선 등 총 64회선이 연결되어 있다. 한편, 북한의 신포 경수로부지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 현황]

(2003.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1971. 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19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1972. 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1984.12.21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1971. 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1992. 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판문점경유)	2	1997.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1998. 2.17
남북군당국간 직통전화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2. 9.24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3.12. 5
합	계	33	

###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 현황]

(2003.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I~인텔샷~평양~신포	8	1997. 8. 4
		2	2000. 7.26
		6	2001. 5.23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샷~평양~원산 ~온정~장전	6	1998.11.17
		2	1999. 5.18
		2	2003. 9.19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시설관리용	한국~일본IDC~인텔샷~평양	3	2000.11.21
개성 현대중기관리사무소용	한국~일본IDC~인텔샷~평양~개성	2	2003.12.15
합	계	31	

## 제3절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 1. 개 관

사회문화교류는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협력 추진”이라는 정책 기조하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지원계획」, 「정당차원 대북교류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남북 당국간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당국차원의 제도화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이루었다.

3.1절 민족대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민족평화축전 개최 등 대규모 방남행사와 평양실내체육관 개관행사, 8.15 남북공동행사, 평양노래자랑 등 방북행사를 통해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 및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다.

특히, 8.15 남북공동행사, 개천절 남북공동행사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성사됨으로써 교류행사가 일회성·이벤트성에 그치지 않

고 지속화·정례화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교조, 방송인, 의사, 청년학생 등 참가계층이 더욱 다양화됨으로써 남북간 동질감 형성 및 접촉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3D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등 영상물·출판물 협력이 강화되어 지속적인 교류추진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시 북측선수단 참가관련 북측의 입장 번복, 제주 평화축전시 예술단·취주악단 불참 등 북측의 합의사항 불이행,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 차이 등은 앞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 2.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2003.4.27-29)에서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U대회조직위원회와 북한대학생체육협회간 실무접촉(7.4-6)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북측 참가종목과 선수단 및 응원단 규모, 이동경로, 편의 제공 문제 등 실무절차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수단체가 주관한 8.15 행사 등 대회 외적인 문제로 인해 북한의 참가가 지연되어 북한 선수단·응원단 등 총 527명의 인원은 당초 입국 예정일(8.17, 8.18)보다 지연된 8월 20일에 고려민항 직항로 편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대회(8.21-31)에 참가하였다. 대회기간 중 우리측의 U대회 미디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시 북측

참가단과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로 대회운영에 다소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U대회 사상 최대규모인 북한 선수단은 9개 종목에 참가하여 금메달 3개(여자축구, 유도, 리듬체조),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여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북한 응원단은 북한이 출전한 주요 경기와 우리측이 출전한 대 미국·일본 배구경기 응원에 참여하는 한편,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8.29)와 선수촌내 취주악공연(8.31) 등 총 2회의 공연을 실시하였다. 북한 참가단은 대회가 종료된 다음날인 9월 1일 방문할 때와 동일한 직항로 편으로 귀환하였다.

북한이 부산아시안게임 참가에 이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개최된 국제 체육행사에 대규모로 참가단을 파견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북한핵문제로 6자회담이 개최되는 등의 상황에서 남북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이미지를 제고시켰다.

### 3. 제주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민족평화축전) 북한 참가

민족평화축전은 원래 2003년 7월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남북 행사 추진 주체간에 합의(4.11)되었다. 그러나 사스(SARS) 전염 문제 등으로 인해 행사 개최시기가 연기되어 오다가 남북 행사추진 주체간 3차례의 금강산 실무접촉 끝에(7.7-9, 8.21~23, 9.17- 22) 최종합의(9.8)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9.16)을 받은 이후 민



족평화축전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행사를 준비하였다.

북한 참가단 190명은 당초 도착 일정(10.22, 10.23)을 변경하여 10월 23일 고려민항 동해직항로 편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행사(10.23-27)에 참가하였다. 당초 예술단·취주악단을 포함하여 북측 인원 4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하기로 남북간 합의하였으나, 북측이 10월 19일 예술단·취주악단의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민족평화축전은 체육행사 위주로 개최되었다. 행사 기간중 북한 참가단은 축구·탁구·마라톤 등 체육경기, 씨름·그네·널뛰기 등 민속경기, 태권도시범 등 7개 종목에 참여하였고, 미술·수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그림·수예품·도자기·특산물 등을 전시·판매하였으며, 아울러 한라산 어리목, 퍼시픽랜드, 감귤농장 등을 관광하였다. 북측은 4박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월 27일과 28일 귀환하였다.

민족평화축전 행사는 2차례의 행사 개최시기 연기, 북한 참가단 규모 축소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체육과 문화행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교류협력의 새로운 모형이 되었다.

#### 4. 유경정주영체육관 개관행사

평양의 실내종합체육관인 유경정주영체육관은 남북간에 교환경기를 실시할 목적으로 남측 현대와 북측 아태가 공동 건설에 합의(1998.10.29)한 사업으로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1999.9.20)을 받은 이후 현대 15개 계열사가 건립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

진하였고, 2003년 상반기중 개관 행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 참가 인원의 육로 방북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 사스(SARS), 정몽헌 회장 사망 등으로 인해 행사 개최시기가 연기되어 오다가 현대와 아태간 최종합의(8.23)가 이루어졌다.

체육관 개관 행사(10.6-9) 참석 및 준비를 위해 1,072명의 우리측 인원이 75대의 차량을 이용, 최초로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여 3박 4일간 개관식과 남북합동공연, 통일농구대회, 참관 등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5. 다양한 남북공동행사 개최

### 가. 방송·문화분야

금년도 문화예술교류는 방송물 제작, 체육행사 등 여타 교류행사와 함께 추진되었다.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동안에는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8.29)를 개최, 북한응원단과 남한대학생이 하나되는 문화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유경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으로 남한의 대중가수와 북한예술인의 합동공연(10.6, SBS 생중계)이 이루어졌다.

KBS는 8월 11일 평양노래자랑을 개최하여 북한주민 23명의 노래 경연과 남한 대중가수의 축하공연을 방영하였으며, 방송물 「남북해 외학자 통일회의」, 「경협현장을 가다」를 제작·방영하였다.

방송위원회는 북한에 방송장비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방송기술방

식 통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남북방송인 학술토론회, 방송영상물 소개모임(10.15-19) 개최를 통해 상호 영상물을 구입하고, 상호 방송 체제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남한영화제에 북한영화 상영이 많이 이루어졌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살아있는 령혼들」, 대중상영화제에서 「청자의 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신혼부부」 등 7편이 상영됨으로써 북한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 나. 종교분야

종교분야 교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교차원의 관심과 대북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관심을 바탕으로 기독교, 불교, 민족종교 등 각 종단·교단을 중심으로 대북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기의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탈피하여 남북간 실질적 교류협력에 무게를 두고 활발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3년에 추진된 주요 교류협력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의 2001년 평양신학원 관련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운영비를 2004년도까지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평양신학원 신축 협력사업을 2003년 1월에 승인을 받아 2003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997년이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을 매년 합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한민족협의회·새에덴교회·수지광성교회·한국기독교공보사 등 교회관계자들은 북한 방문시마다 평양 봉수교회·칠골교회·가정교회에서 남북공동예배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조국통일

기도동지협의회 등 기독교 관련 단체들은 금강산에서 조국평화통일 기원 남북공동기도회를 개최하였다.

불교계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조선불교도연맹측과 함께 1997년 이래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채택하여 남북공동법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은 2003년 7월에 단청문화 전시회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8월 북한사찰 ‘법운암’ 시범 단청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59개 사찰에 필요한 단청재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한불교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북원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와 26만장을 경의선 육로를 통하여 2003년 말까지 지원하였으며, 2004년 4월까지 총 46만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민족종교계는 천도교 등 관련 종교단체 합동으로 2003년도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북한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2003년 10월 평양에서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및 단군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다. 남북공동행사

2003년은 민간단체의 남북공동행사가 정착된 한해였다. 3.1절 남북공동행사가 북측 민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사스(SARS)로 인해 노동절 남북공동행사는 취소되었고, 6.15 남북공동행사는 남·북·해외에서 각기 개별행사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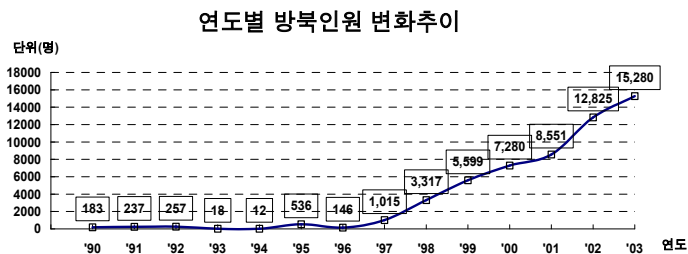
또한 8.15남북공동행사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는 바, 동 행사는 2001년 이후 매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됨으로써 정례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어서 9월에는 청년학생유적답사단이 방북하였다.

남북공동행사는 종교·노동·농민·청년·여성 등 다양한 민간부문 단체들이 질서 있게 대규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례화 되었으며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및 통일의지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 제4절 남북한 인적 교류

### 1. 남북한 왕래

19 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남북한 왕래는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2003년 북한 방문은 신청 1,060건(16,161명), 승인 1,028건(15,697명), 성사 983건(15,280명)으로 1989년 방북이 허용된 이래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1989.6.12-2003.12.31, 단위:건(명))

연도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북한방문	1(1)	1(1)	1(1)
	남한방문	-	-	-
1990	북한방문	7(199)	6(187)	3(183)
	남한방문	5(306)	5(306)	4(291)
1991	북한방문	12(244)	11(243)	10(237)
	남한방문	3(175)	3(175)	3(175)
1992	북한방문	17(303)	8(257)	8(257)
	남한방문	4(113)	3(103)	3(103)
1993	북한방문	6(21)	5(19)	4(18)
	남한방문	2(6)	2(6)	2(6)
1994	북한방문	12(78)	7(54)	1(12)
	남한방문	-	-	-
1995	북한방문	64(563)	58(543)	52(536)
	남한방문	1(7)	1(7)	-
1996	북한방문	50(249)	35(170)	28(146)
	남한방문	-	-	-
1997	북한방문	156(1,194)	149(1,172)	136(1,015)
	남한방문	-	-	-
1998	북한방문	402(3,980)	387(3,716)	340(3,317)
	남한방문	-	-	-
1999	북한방문	886(6,199)	862(5,997)	822(5,599)
	남한방문	1(62)	1(62)	1(62)
2000	북한방문	865(8,070)	845(7,737)	804(7,280)
	남한방문	10(706)	10(706)	10(706)
2001	북한방문	786(9,148)	737(8,805)	698(8,551)
	남한방문	5(191)	5(191)	5(191)
2002	북한방문	802(13,502)	774(12,979)	753(12,825)
	남한방문	13(1,120)	13(1,120)	13(1,052)
2003	북한방문	1,060(16,161)	1,028(15,697)	983(15,280)
	남한방문	11(1,023)	11(1,023)	11(1,023)
계	북한방문	5,126(59,912)	4,913(57,577)	4,643(55,257)
	남한방문	55(3,709)	54(3,699)	52(3,609)

※ 금강산 관광객은 제외된 숫자임.

## 가. 남한주민 방북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5,126건(59,912명), 승인 4,913건(57,577명), 성사 4,643건(55,257명)이며, 1998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은 총 55,257명에 이르고 있다.

### (1) 경제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경제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1,320건(7,566명), 승인 1,230건(7,187명), 성사 1,143건(6,703명)이었다. 2003년에는 신청 419건(3,006명), 승인 407건(2,980명), 성사 398건(2,905명)으로 이는 2002년 방북인원 1,754명에 비하여 65.6% 증가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1998년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허용되면서 같은 해 10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협의하였다. 1999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해 북한의 고위층과 직접 협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 8회, 남북경협 실무접촉 2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 2회,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3회,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9회,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1회,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4회,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회, 청산결제 실무협의 2회 등 경제협력에 관한 각종 회담



이 이어져 상호방문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의 추진과 협의를 위한 우리 경제인들의 북한 방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도에도 경제분야에서는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기업인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방문 등 사업협의를 위한 방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한 자재·장비 지원, 일반경협사업으로서 삼성전자의 임가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KT&G의 담배임가공사업,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조립생산사업, 국제옥수수재단의 농업기술협력사업 등 바야흐로 본격적 경협과 관련한 사업출장성 방북이 이어졌다. 또한 성신산업의 철도화차 제작기술지원, 제일모직, LG 등 의류임가공사업 및 물자교역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방북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 (2) 사회문화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3년 12월 말까지 사회문화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595건(5,927명), 승인 546건(5,399명), 성사 464건(4,790명)이었다. 2003년에는 신청 125건(1,752명), 승인 118건(1,505명), 성사 100건(1,400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02년 방북인원 1,193명에 비하여 17.4% 증가한 것이다.

2003년도 올해 상반기에는 사스(SARS)의 영향으로 남북간 왕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되기도 하였으나,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협력 추진” 기조하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사회문화 교류가 추진되면서 방북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대규모 남북공동행사, 학술토론회 등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되면서 대규모 방북이 많이 이루어졌다.

학술·체육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 현재까지 신청 262건(3,498명), 승인 253건(3,472명), 성사 224건(3,162명)이며, 2003년에는 신청 43건(1,589명), 승인 43건(1,556명), 성사 41건(1,550명)이 이루어졌다.

2003년도 주요 방북사례는 유경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 참가를 위해 1,072명이 방북하였다.

언론·출판분야 방북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88건(807명), 승인 76건(661명), 성사 68건(625명)이었다. 2003년에는 신청 27건(374명), 승인 23건(261명), 성사 21건(253명)이 이루어졌다.

2003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KBS의 전국노래자랑 평양편 개최, 방송위원회의 남북방송인 토론회 및 방송영상물 소개 모임 개최, 영진닷컴의 도서번역 출판 협력사업 추진,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어린이 통일문고사업 등이 있다.

종교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120건(1,305명), 승인 103건(1,090명), 성사 84건(981명)이었다. 2003년에는 신청 27건(715명), 승인 25건(621명), 성사 22건(584명)으로 인적교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도 주요 방북사례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북한사찰 단청불사 협력사업,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복원 협력사업, 민족종교 단체에서 추진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평양신학원 건립사업, 대한감리회 서부연회의 평양신학원 운영사업 추진 등이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85건(1,096명), 승인 78건(1,053명), 성사 57건(916명)이었다. 2003년에

는 신청 22건(88명), 승인 22건(88명), 성사 11건(34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방북인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3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사단법인 통일맞이에서 추진한 문익환목사 10주기 추모행사 개최 협의와 백범정신실천거례연합의 백범유적 답사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민간단체 등 기타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110건(5,801명), 승인 101건(5,482명), 성사 94건(5,370명)이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신청 28건(998명), 승인 26건(962명), 성사 24건(923명)이 이루어졌다.

2003년 주요 방북사례로는 대통령특사 파견, 당국간 회담 참가, 8.15 남북공동행사 등 남북공동행사 참가, 남북청년학생대회 참가, 부산시 대표단 방북 등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협의, 남북노동자교류 협의 등이 있다.

### (3)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방북

1995년에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부지조사단과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 방문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1999년 12월 본공사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00년부터 경수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의 북한 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에 대두된 북한 핵문제로 인해 2003년 2월 KEDO가 공사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한 이후 경수로사업 관련 방북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KEDO 금호사무소 대표들과 한국 전력공사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금호지구 체류인원도 2003년

초의 600여명에서 감소해 왔으며, KEDO가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연말에는 2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2003년도 경수로사업 관련 방북은 신청 160건(2,692명), 승인 160건(2,692명), 성사 160건(2,681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방북인원 수(4,108명)와 비교하여 35% 감소한 것이다.

#### 나.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2003년도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1건(1,023명)이 신청·승인되어 11건(1,023명)이 성사되었다. 장관급회담, 각종 경제회담, 대구하계U대회 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전년도 1,052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 [주요 남한방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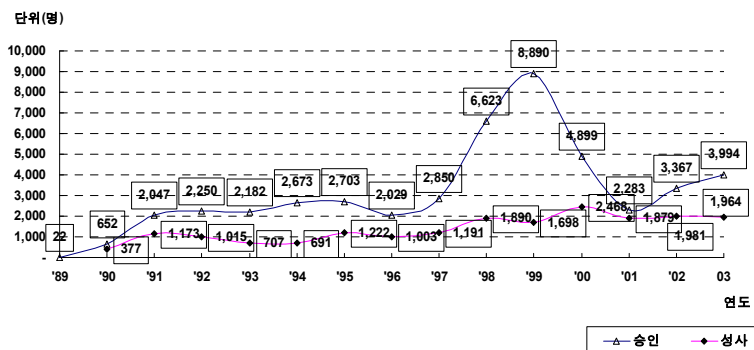
연도	방문목적	방문자	방문기간
2000년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최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 비서 등 공연단 102명	2000.5.24-5.30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김유식 평양교예단 예술부단장 등 공연단 102명	2000.5.29-6.1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참가	전금진 등 대표 4명 수행원 기자 25명	2000.7.29-7.31
	제1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유미영 대표 등 15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력 31명, 기자 20명)	2000.8.15-8.18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참가	허이복(조선국립교향악단 단장) 등 132명	2000.8.18-8.24
	북한 특사 방문	김용순 등 8명	2000.9.11-9.14
	제1차 경제협력실무접촉	정운업 등 15명	2000.9.24-9.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김일철 등 13명	2000.9.24-9.26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전금진 등 22명	2000.9.27-9.30
	제2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장제언 등 136명	2000.10.31-11.2
200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김경락 등 140명	2001.2.26-2.28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조문단	송호경 등 4명	2001. 3.23
	조총련계 북한국적 축구 선수 현대축구단 입단	양규사	2001. 3.28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 참석	김령성 등 27명	2001.9.15-9.18
	KEDO원전 고위정책자 과정 참여	김희문 등 19명	2001.12.17-12.29

연도	방문목적	방문자	방문기간
2002년	경수로사업 항공관계자 국내시찰	안영환 등 10명	2002.5.19-5.24
	경수로사업관련 핵안전 규제요원 훈련	김영일 등 25명	2002.7.2-7.27
	KEDO 원전건설 인력수 송 항공기 운항 승무원	길종기 등 14명	2002. 7.20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등 41명	2002.8.12-8.14
	8.15남북공동행사	김영대 단장 등 116명	2002.8.14-8.1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박창련 등 30명	2002.8.27-8.30
	남북통일촉구경기	리광근 등 49명	2002.9.5-9.8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박명철 등 638명	2002.9.22-10.15
	개천절남북공동행사참가단 수송	김수겸 등 15명	2002.10.1-10.5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장 응 등 7명	2002.10.8-10.15
	북한 태권도시범단 서울 공연	황봉영 등 41명	2002.10.23-10.26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박남기 등 18명	2002.10.26-11.3
	남북경제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김춘근 등 18명	2002.12.11-12.13
2003년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등 29명	2003.1.21-1.2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박창련 등 27명	2003.2.11-2.14
	평화와 통일을 위한 3 1 민족대회 참가	장재언 등 105명	2003.3.1-3.3
	전교조 교육견학단 방북수송	김수겸 등 18명	2003. 7.29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등 32명	2003.7.9-7.14
	제22회 대구하계U대회 참가	전극만 등 524명	2003.8.20-9.1
	남북태권도교류 협의 및 대구하계U대회 참관	장웅 등 3명	2003.8.17-8.2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박창련 등 29명	2003.8.26-8.28
	개천절공동행사 참가자 수송	김철 등 40명	2003. 9.29
	제주민족평화축전 참가	김영대 등 190명	2003.10.23-10.28
	남북 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제8차 회의	박정성 등 26명	2003.12.2-12.8

## 2. 북한주민 접촉

북한주민 접촉은 주로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과의 서신교환, 기업인들의 교역·투자상담,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공동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주민접촉 승인, 성사 추이



2003년도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은 경제분야 411건(534명), 사회문화분야 98건(484명), 대북지원 41건(156명), 이산가족 388건(444명), 기타 16건(346명) 등이다.

##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 현황]

(단위 : 건(명))

구 분		경제	관광 협업	사회 문화	대북 지원	이산 가족	기 타	계
'02년	신청	781 (1,193)	7 (8)	254 (1,009)	19 (52)	406 (546)	18 (626)	1,485 (3,434)
	승인	763 (1,170)	4 (5)	247 (997)	20 (53)	403 (542)	16 (600)	1,453 (3,367)
	성사	237 (390)		160 (702)	17 (50)	199 (266)	8 (573)	621 (1,981)
'03년	신청	767 (1,198)	2 (6)	233 (896)	41 (156)	500 (641)	39 (1,275)	1,581 (4,169)
	승인	745 (1,161)	2 (6)	224 (848)	41 (156)	484 (615)	32 (1,208)	1,527 (3,991)
	성사	411 (534)		98 (484)	41 (156)	388 (444)	16 (346)	954 (1,964)

경제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5,941건(12,787명), 승인 5,801건(12,472명), 성사 2,935건(4,755명)에 이르고 있다. 2003년에는 신청 781건(1,198명), 승인 745건(1,161명), 성사 411건(534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2003년도 물자교역 및 남북경협 협의목적의 북한주민 접촉은 정보 기술(IT)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이징, 홍콩 등 제3국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촉은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인의 방북으로 이어져 남북경협이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190건(613명), 승인 179건(582명), 성사 51건(171명)으로 집계되었다. 2003년에는 신청 1건(3명), 승인 1건(3명)으로 평화항공 여행사가 북측과 평양 관광상품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문화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학술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764건(4,838명), 승인 710건(4,149명), 성사 284건(2,693명)이 이루어졌다. 2003년도에는 신청 70건(411명), 승인 66건(374명), 성사 32건(263명)으로 성사 인원은 전년도 42건(262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체육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309건(1,349명), 승인 272건(1,303명), 성사 108건(759명)이다. 2002년에는 신청 35건(194명), 승인 34건(192명), 성사 24건(147명)의 북한주민접촉이 이루어져 접촉 성사건수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되었다.

체육분야의 주요 접촉 사례로는 대구하계U대회(8.21-31),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제주, 10.23-28), 유경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평양, 10.6-9), 남북 축구교류 추진, 남북태권도교류 추진 등이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의 신청 565건(2,151명), 승인 508건(2,038명), 성사 178건(1,032명)이었으며, 2003년에는 신청 55건(150명), 승인 54건(149명), 성사 12건(33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2003년도의 주요 접촉 사례로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상영 추진, 국립오페라단 평양공연 추진, 윤도현밴드 조총련 공연 추진,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추진, 남북합동 수석전시회 개최 등이 있다.

종교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442건(2,156명), 승인 385건(2,003명), 성사 176건(1,247명)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신청 21건(79명), 승인 21건(79명), 성사 9건(25명)

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해 접촉신청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2003년도 주요 접촉 사례로는 남북간 기독교 교류 및 선교 협력방안 협의, 조총련계 조선학생 초청사업 추진, 제3회 통일염원 순례행사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출판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465건(1,215명), 승인 419건(1,107명), 성사 172건(527명)이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신청 42건(73명), 승인 39건(66명), 성사 18건(41명)이 이루어졌다.

2003년 주요 접촉 사례로는 남북공동방송물제작 등 남북방송교류추진, 북한저작물 국내 출간 추진, 금강산·개성지역 현장 취재 등 남북취재와 언론출판교류 협의, 조총련대상 도서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 등 기타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461(3,696명), 승인 356건(3,352명), 성사 126건(1,938명)이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신청 39건(1,275명), 승인 32건(1,208명), 성사 16건(346명)이 이루어졌다.

2003년 주요 접촉 사례로는 부산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남북청년문화행사 참가, 한국어능력인증시험 조총련계 합격자 면접, 3.1민족대회 등 남북공동행사 참가 등이 있다.

과학·환경분야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이후 2003년 12월말까지 신청 299건(1,107명), 승인 284건(1,078명), 성사 110건(463명)이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신청 23건(79명), 승인 20건(73명), 성사 15건(61명)이 이루어져 접촉성사 인원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했다.

2003년도 주요접촉 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내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의 협력사업을 위한 접촉

과 남북정보산업표준협력회의(2003.12)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환경 분야 관련 주요접촉사례로는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평화의 숲」의 양묘장 건설 사업, 「남북강원도협력협회」의 산림 병충해(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레)방제 사업 등과 관련된 접촉이 이루어졌다.

##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 1.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및 제도화 추진

남북교류협력을 정치나 이념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측은 남북간 경제협력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그 결과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2차례 경협실무접촉을 갖고 「남북사이의 투자보

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경협합의서를 타결하고 이에 가서명하였으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에 의해 2000년 12월 16일 정식 서명되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4개 경협합의서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남북간의 투자사업에 있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약방식’ 발효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무회의(2001.5.22)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4개 경협합의서안에 대한 체결동의안을 2001년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의안은 200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북측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켜 내부 절차를 마쳤다. 남과 북은 8월 20일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4개 경협합의서를 정식으로 발효시켰다.

4개 경협합의서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공동규범이 남북간 합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4개 경협합의서 발효로 남북경제협력은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개 경협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경협합의서 발효와 함께 그 후속조치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는 이제 정치적인 합의의 수준을 넘어 법적·제도적 단계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2002.11.6-11.9)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구성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된 제2차 회의에서는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청산결제 은행으로 우리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을 각각 지정하였으며, 4개 경협합의서 발효 일정을 합의하고,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문산에서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의 일부 사항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법령교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전시켜 우리측 요구법령 목록을 전달하였다.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체결문제에 논의를 집중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을 보지 못한 채 빠른 시일내에 실무접촉을 통해 계속 토론하기로 했고, 남북간 통신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북은 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확인과 청산결제 문제를 세부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회를 구성하고,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회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쌍방은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시기에 개최된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에서 쌍방은 남북간 청

산결제를 2004년 2/4분기부터 시행하고,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기로 하는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고,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4개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와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2.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 가. 추진경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 및 특사방북(2002.4.3-4.5)을 통해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였으며, 뒤이어 개최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회의(2002.9.13-17, 금강산)에서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우리측에서 제공기로 함으로써 반세기동안 끊어져 있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의 운반이 빈번해지고 금강산육로관광이 본격화됨으로써 남북출입업무를 관할하는 상시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임시출입사무소를 운영하기 시

작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자로 직제를 공포, 남북출입사무소가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 나. 주요업무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한 철도 및 도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남북  
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  
항,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북한간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현재는 남북철  
도·도로 연결 자재장비의 운송, 금강산관광객 및 개성공단개발과 관  
련한 인적·물적 출입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또한 남북출입사무소장은 ‘남북철도·도로 운영을 위한 공동위원회’  
의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아 대북협상업무를 수행하며, 남북간 철도·  
도로의 실제적인 운행이 시작되면 ‘철도 및 차량 운행 사무소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다.

도라산역사 2층에 남북출입사무소 본부사무실을 두고 경의선(도라  
산) 남북출입사무소와 동해선(고성) 남북출입사무소 등 두 군데를 운  
영하고 있으며 소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출입심사·통관·사람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 등 CIQ업무를  
위해 법무부·관세청·보건복지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경의  
선과 동해선지역에서 각각 20여명씩 근무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정세현 통일부장관의 참석하에 12월24일 개소  
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 3.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법 제도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정비해 왔다.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맞도록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도 갖추어 왔다.

2003년에는 우선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2003.2.6)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시행하였다. 그 동안 경험기업이 제기해 온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금대출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였다.

2003년 9월에는 남북간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를 제정하여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원산지 판정기준, 확인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존 교역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03년 12월에는 국내외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반입제한 품목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 4.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가.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일부 민간의 출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3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1조 9,250억원, 민간출연금 22억원, 운용수익금 2,90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조 427억원, 기타 수입금 17억원 등 총 4조 2,620억원이 조성되었다.

1998년 및 1999년 2년간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1,00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기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출연금 규모가 대폭 확충되어 2001년도에 5,000억원, 2002년도에 4,900억원, 2003년도에 3,000억원의 정부출연이 이루어졌다.

한편, 민간출연금은 2003년까지 22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남북화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2000년에 6억원, 2001년에는 11억원이 경의선 철도연결을 위한 침목기증 용도 등으로 출연되기도 하였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2003.12.31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운용수익 등	공자예수금*	계
1991	25,000	-	237	-	25,237
1992	40,000	-	5,118	-	45,118
1993	40,000	3	4,778	-	44,781
1994	40,000	1	9,387	-	49,388
1995	240,000	119	14,589	-	254,708
1996	100,000	132	18,409	-	118,541
1997	50,000	288	27,873	-	78,161
1998	-	-	40,280	-	40,280
1999	-	3	23,013	149,831	172,847
2000	100,000	541	30,392	254,852	385,785
2001	500,000	1,080	29,407	310,000	840,487
2002	490,000	78	42,035	505,000	1,037,113
2003	300,000	1	46,515	823,000	1,169,516
계	1,925,000	2,245	292,034	2,042,683	4,261,963

\* 공자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 나.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크게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의 무상지원과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자금융자 등의 유상대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구체적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쌀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민족공동체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경수로사업 대출 3,259억원, 대북 식량차관(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에 867억원, 비료 30만톤 지원에 944억원을 집행하였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146억원,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및 평양교예단 공연지원 등에 23억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에 23억원 등 총 5,306억원을 집행하였다.

2001년도에는 비료 20만톤 지원에 639억원, 식량차관 190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899억원,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교류지원사업에 13억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38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또한 경수로사업 대출 2,555억원, 경험자금 대출 450억원, 교역자금 대출 11억원 등 총 5,544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2002년도 기금집행은 비료 30만톤 지원에 833억원, 식량차관(쌀 40만톤) 967억원, 자재·장비차관 306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260억원,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86억원,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14억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54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5억원,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에 215억원,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북한 참가 관련 지원에 14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또한 KEDO 경수로사업 대출 3,009억원, 경험추진 기업에 대한 경험자금 대출 358억원, 교역자금 대출 4억원 등 총 6,49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2003년도 기금집행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금이 지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비료 30만톤 지원에 836억원, 대북 식량차관(쌀 40만톤) 제공에 1,561억원(2002년도 식량차관 제공 299억원 포함), 자재·장비차관 400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319억원, 동해선 철

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328억원,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23억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75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7억원, 제22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 관련 지원에 9억원,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등 사회문화협력사업에 7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또한 KEDO 경수로사업 대출 3,287억원, 경험추진 기업에 대한 경험자금 대출 108억원, 교역자금 대출 79억원 등 총 7,708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고 있다. 이는 2000년말 국회의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의결시 부대 의견에 따른 것으로, 2001년 1월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 지원까지 총 31건, 1조 2,276억원의 승인사업에 대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였다.

## [연도별·용도별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2003.12.31 기준, 단위: 억원)

용 도 구 분		'91~'97	'98	'99	2000	2001	2002	2003	누 계
주 민 왕 래 지 원					2.8 (1)	2.5 (1)	236.9 (9)	11.4 (3)	253.6 (13)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		9.5 (2)	0.3 (1)		6.4 (1)	1.0 (1)		6.5 (2)	23.7 (7)
손 실 보 조		12.7 (1)							12.7 (1)
반출입자금 대출					5.0 (1)	10.8 (9)	3.9 (5)	79.3 (29)	99 (44)
경협사업자금대출						450.0 (1)	357.7 (3)	107.8 (2)	915.5 (6)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2,124.6 (10)	874.2 (5)	343.3 (3)	5,292.3 (20)	5,080.0 (34)	5,896.0 (46)	7,502.4 (55)	27,112.8 (115)
	무 상	2,124.6 (10)	199.0 (4)	343.3 (3)	1,165.5 (18)	1,887.6 (32)	1,614.0 (43)	2,294.5 (50)	9,628.5.0 (108)
	대 출		675.2 (1)		4,126.8 (2)	3,192.4 (2)	4,282.0 (3)	5,207.9 (5)	17,484.3 (7)
합 계		2,146.8 (13)	874.5 (6)	343.3 (3)	5,306.5 (23)	5,544.3 (46)	6,494.5 (63)	7,707.4 (91)	28,417.3 (184)

※ ( )는 기금사업 건수

##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003.12.31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조성 및 지출	조 성 (A)	정부출연	19,250
		민간출연	22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20,427
		운용수익	2,903
		기타수입금	17
		계	42,619
	지 출 (B)	경상지원	9,919
		운용비용	2,117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상환	4,047
		계	16,083
순조성액(A-B)		26,536	
보유 자산	투자자산	대출잔액(C)	17,78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000
	유동자산	경수로계정	2,067
		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	5,680
	보유자산액(현보유자금*)		26,536(8,747)

\* 현보유자금 8,747억원 = 조성액(A) 42,619억원 - 사용액(B+C) 33,872억원

### 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위원장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3년 12월말 현재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 국가정보원차장, 국무조정실기획수석조정관으로 구성되며 안전에 따라 위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관련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을 그 기능으로 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협의회는 주요 대북정책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심의하여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 「남북한교역대상품품및반출·반입절차에관한고시」,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예관한고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남북경제교류협력예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예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등을 의결하였다.

2003년도에는 총 13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두 23건의 안전을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8년 8회, 1999년 12회, 2000년 13회, 2001년 13회, 2002년 20회 개최 등 남북교류협력 진전에 따라 협의회 개최 횟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회 차	일 자	안	
		의안번호	의 안
109	'03.2.14	195 196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기금 지원 2002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110	'03.4.15	197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관련 기금 지원
111	'03.5.16	198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112	'03.6.3	199 200	20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3·1 민족대회에 대한 기금 지원
113	'03.6.21	201 202 203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기금 지원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기금 지원
114	'03.7.19	204 205 206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농수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를 위한 기금 지원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남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115	'03.8.9	207	북측 유류배지선 구조·송환을 위한 기금 지원
116	'03.8.27	208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에 대한 기금 지원
117	'03.8.27	209	북한선수단 응원단의 대구하계U대회 참가에 따른 기금 지원
118	'03.9.18	210 211	제8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기금 지원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
119	'03.10.9	212 213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대북 자재·장비차관 제공을 위한 기금 추가지원
120	'03.10.13	214	대북 비료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121	'03.12.16	215 216 217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따른 설계 및 착공 관련 기금 지원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